

**동포청, 47개국 한글학교 교사들 초청해 역량강화 연수 실시**

- 7월14~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서 교사·교장 240명 실습 위주 교육
- 이상덕 청장 “현장 중심의 실용 연수가 되도록 운영하겠다”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이 7월 14일(월)부터 19일(토)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전 세계 47개국 한글학교 교사들을 초청해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진행한다.
 - 교사 간 교류와 협력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연수에는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 24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.
 - 한글학교는 현재 전 세계 116개국 1천464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, 약 1만4천500명의 교사가 활동하고 있다. 고국 초청 연수는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28회째를 맞는다.
- 올해 참가자들은 실습 중심의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연수에 참여한다. 6월 23일부터 3주간 온라인 사전 연수(개요 및 이론)를 받았다.
 - 한국어 수준별 말하기·쓰기 교수법 워크숍을 비롯해 △놀이 및 그림책 활용 수업법 △학교 운영 전략 공유 등 교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중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.
 - 특히, 다문화학교인 안산 원곡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을 참관함으로써 실제 교육 사례를 기반으로 한 현장 학습도 한다.
 - 참가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가장 높은 AI시대를 반영한 한국어 교육

방법도 이번 초청 연수의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.

- 참가자들은 사전 온라인 강의 ‘한국어 수업에서의 AI 도구 활용’을 통해 이론을 먼저 익힌 후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‘AI 활용 한국어 수업 워크숍’에서 실습한다. 이를 통해 최신 교육 기술을 수업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게 된다.

□ 이 외에도 교사 맞춤형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됐다.

- 토크콘서트 ‘나의 말, 나의 이름, 나의 이야기’에서는 한글학교 학생, 학부모, 교사가 함께 모여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한다.
- 재외동포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심리 강연을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, 심리적 치유 방안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된다.
- 또한, 한글학교 교사들과 재외동포청 한글학교 담당자들이 직접 만나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운영될 예정이다.

※ 붙임: 한글학교 초청연수 프로그램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	책임자	과장	이희경	032-585-3207
		담당자	주무관	남현숙	032-585-3255